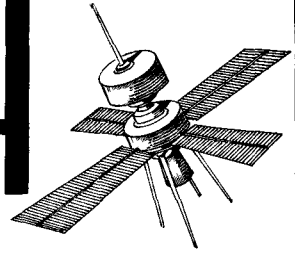


이달의

인테니



盧永翰
(본지 편집국장)

대화를 통한 화합의 호랑이 해

정확히 말해서 이달 9일부터 음력으로 丙寅年 새해가 시작된다. 연초부터 금년은 호랑이 해이고 88올림픽 마스코트가 호돌이이기 때문에 호랑이해에 거는 기대가 더욱 큰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이 호랑이에 대한 친근감때문에 호돌이가 마스코트로 정해진 것 같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물이 역시 호랑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호랑이 하면 무서운 인상에 앞서 역시 점잖은 동물의 인상이 남는다. 어쩌다 TV에서 동물세계를 보아도 호랑이는 악착같이 먹이를 잡는 것 보다는 점잖게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그 근처에는 영양, 사슴, 각종 새들이 함께 지나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 조상들이 그린 민화에도 호랑이와 함께 까치나 토끼

를 그리고 있어 평화스럽게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호랑이가 분수를 알기 때문에 적당한 음식물을 섭취한 후에는 필요이상의 과식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허기진 것을 면한 후에는 토끼와도 공존을 한다. 오히려 피많은 토끼가 호랑이를 놀리는 민담도 많이 전해지고 있다. 아마도 호랑이는 토끼의 잔피를 알면서도 넓은 도량으로 속아 주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긴다.

몇년 전부터 사료업계가 재벌기업의 사료업계 참여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고 지난해에는 동물약품업계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을 받아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2년전에는 군소 양돈업자들의 진정이 계기가 되어서 일정규모 이상의 양돈, 양계는 허가나 등록을 받도록 법으로 제한한 바 있다.

채란업계도 대군업자와 군소업자간에 갈등이 전혀 없을 수가 없다. 현재도가 대군업자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어 군소업자들의 불만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축산 경영비의 60~70%를 차지하는 배합사료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대규모업자가 3%정도 싸게 구입하지 않나 생각된다.

더군다나 금년에는 정부의 사료수급계획이 양계사료 공급물량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영세한 소규모 업자들이 더욱 괘시를 받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규모가 적은 것도 서럽거늘 값마저 비싸게 구매해서야 되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걱정들이 모두가 기우가 되었으면 한다. 호랑이해답게 호랑이처럼 분수를 지켜 자제도 하여 호랑이와 토끼와 까치가 공존하는 한해를 바라기 때문이다.

예언서에 사자가 풀을 뜯으며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도 살 수 있는 대화를 통한 화해의 한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지나친 욕심은 아닐 것이다.

사료절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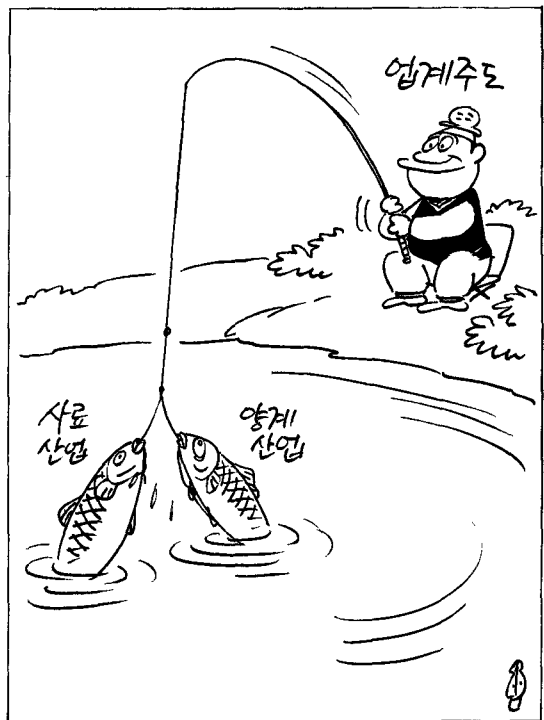
지난해부터 외채문제가 신문에 자주 보도되고

전국민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자 YMCA 등에서 외채절감운동을 전개하는 등 전국민운동으로 확산되어 갈 것으로 보여진다.

84년도만 해도 우리나라의 외채는 상환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들 하였는데, 지난해부터는 분위기가 싹 변해버리고 말았다.

외채하면 언제부터인가 원유와 사료곡물이 연상될 만큼 사료곡물에 관심을 갖게 되어 사료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일년간 추진해 왔다. 이제 우리나라의 배합사료정책은 사료절감정책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될 정도가 되었다.

양계경영비의 약 70%가 사료비이고 또 100%가 배합사료를 구입해서 양계를 하기 때문에 양계인의 가장 큰 관심이 사료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배합사료의 가격자유화로 사료공장들이 치열한 판매경쟁으로 육계의 경우 사료요구율을 선진외국의 수준인 2.0으로, 산란계의 경우에도 연중 평균산란율을 80%이상으로 높여 놓았다. 이것이야 말로 사료절감의 가장 좋은 방안임을 확증하였다. 또한 지나친 정부의 규제가 그동



안 사료자원을 얼마나 낭비해 왔는가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결과가 되었다.

우리가 이러한 값진 경험을 앞으로도 계속 활용한다면 사료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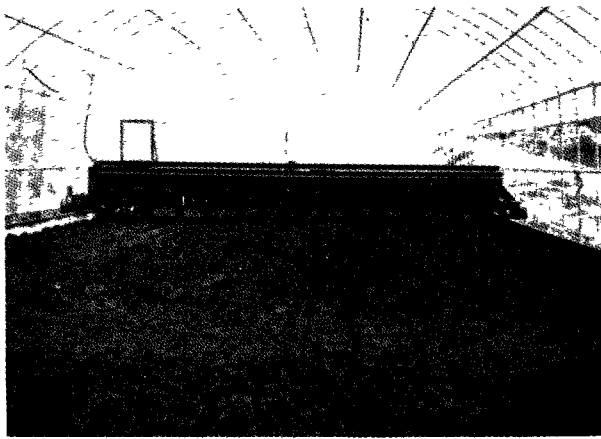
과거처럼 곡류사용을 제한하여 소위 밀기울 양계로 되돌아간다가나 쿼타 등 물리적인 방법으로 물량을無理하게 조절하려 할 경우 품질개선보다는 물량의 증가에 힘을 기울여 오히려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가 될 수가 있다. 과잉으로 생산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시장기능에 의해서 적정량을 생산하는 길밖에 현재로서는 더 훌륭한 방

법은 없으며, 행정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적정수만 사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앞으로도 계속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창의적으로 업계주도하에 양계산업과 사료산업이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외채질감 때문에 업계가 위축되고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르듯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활로를 개척하려 할 때 부작용은 엄청날 것이며, 오히려 외화낭비로 이어질 소지가 많아진다. 업계의 사황이 결린 중요한 정책이니까 많은 대화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양계산업의 과학화와 생산비 절감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전자동 축분건조 장치

태양열과 바람을 이용한 자연에너지 활용



● 특 장 ●

- 전자동
- 연료비가 없음
- 무취로 공해가 전혀 없음
- 연분 처리 적합
- 완전 분쇄 건조
- 타이머 부착으로 작동 전후진
- 건조계분은 유기비료로 대인기

● 생산품목 ●

- 스크레파 및 스크류콘베이어
- 부화기(조류, 오리, 닭)
- 인공화분

AUTOMATIC FEEDING SYSTEMS & INCUBATOR

JA 平農畜機

〒180-86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가곡리 536-1

전화 (0333) 4-7484

야간 (서울) 803-6724